

# 바다와 청산이 한 곳에...선경인가 하노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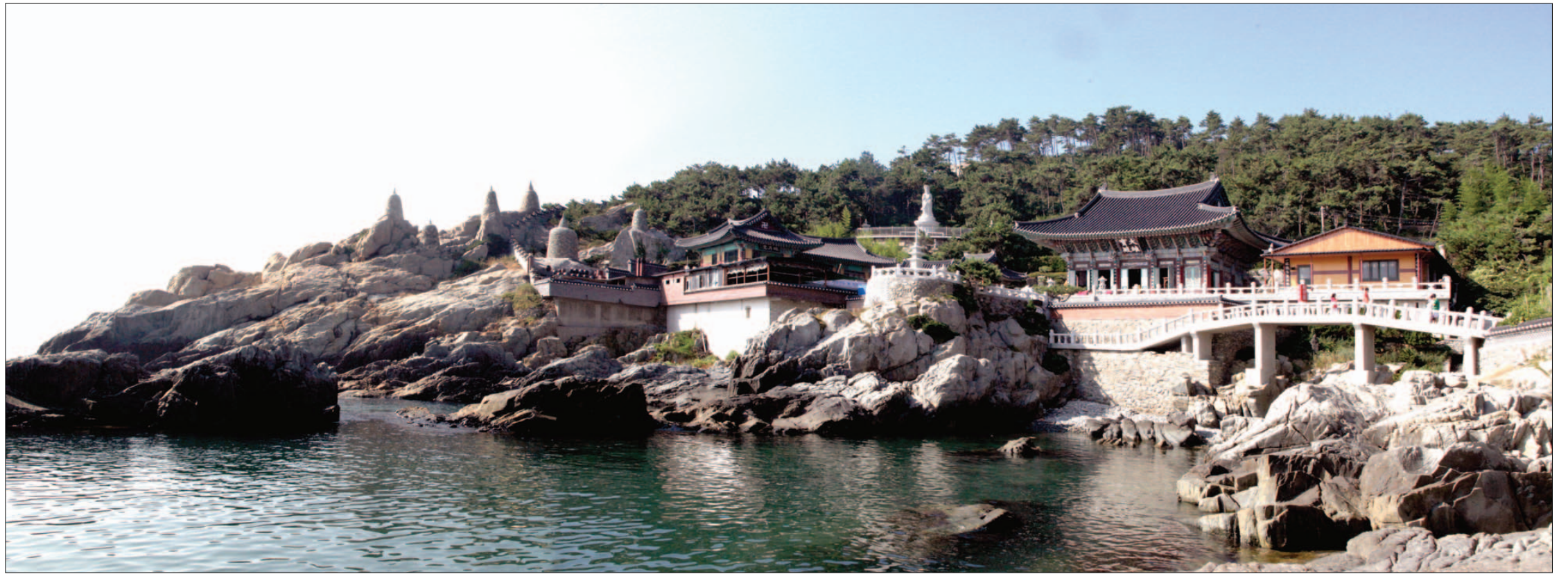
〈仙境〉

## 바다와 산이 만나는 사찰

- 부산 해동용궁사

바다와 산이 만나는 곳에 자리한 절이 있다. 부산 해동용궁사다. 부산은 산과 바다가 만나는 곳이다. 백두대간의 정기가 태백산을 지나고 낙동강을 따라 동쪽으로 굽이치며 낙동정맥인 울진 통고산, 청송 주왕산을 따라 굽이치다 부산의 진산 금정산에서 숨을 고른 뒤 드넓은 바다의 품으로 뛰어든 곳이다. 해동용궁사는 산이 바다가 되고, 바다가 산이 되는 그 부산의 정점에 있다. 산도 아니고 바다도 아닌 곳에 머물면서 산과 바다가 공존하는 그 풍광에 춘원 이광수는 다음과 같이 읊조렸다.

바다도 좋다고 청산도 좋다가는  
바다와 청산이 한 곳에 되단 말가  
하물며 청풍명월이 있으니  
여기 곧 선경(仙境)인가 하노라



신이 바다되고, 바다가 산이 되는 비경 속에 자리한 해동용궁사는 남해 보리암, 양양 낙산사 등과 함께 관음성지로 손꼽히는 기도도량이다.

### 해동용궁사는

남해 보리암, 양양 낙산사 등과 함께 관음성지로 손꼽히는 기도처일 뿐 아니라, 춘원의 시처럼 바다와 산이 한껏 어우러져 만들어 낸 빼어난 자연풍광으로 연일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부산 제일명소 중에 하나이기도 하다.

사찰 입구 표지석에 '한가지의 소원을 꼭 이루는 해동용궁사'라는 말처럼 기도도량으로 이름난 해동용궁사다. 주지 정암 스님은 "용궁사는 1376년 공민왕의 왕사였던 나옹화상에 의해 창건되었다. 나옹화상이 법을 구하기 위해 전국을 돌며 만행을 할 때 이곳에 도달해 지세를 살펴보니, '배산임수 조성모복지(背山臨水 朝誠慕福地)' 즉, 뒤는 산이요, 앞은 푸른 바다로 아침에 불공을 올리면 저녁에 복을 받는 신령스런 곳이어서 이곳에 토굴을 짓고 수행정진을 했다. 임진왜란 때 소실되었는데 1930년대 초 통도사 운강 스님이 보문사로 중창한 후, 1970년대 초 현재의 주지 정암 스님이 주석하면서 지금의 해동용궁사란 이름을 갖게 됐다."고 용궁사의 역사에 대해 말해주었다.

### 용궁사 가는 길

갯내음으로 가득한 동해의 바닷길을 따라 내려오면 동해 최남단의 사찰이 바로 해동용궁사다. 또한, 국제해양도시 부산에 들어서면 해운대에서 차로 10여 분의 거리이며, 기장군으로 들어서는 첫 관문이

### 춘원 이광수도 감탄한 비경

한 가지 소원 꼭 이뤄주는 도량

### 해동용궁사다.

해동용궁사 가는 길로 들어서면 진한 바다 내음과 만나게 된다. 다시마, 미역, 멸치 등 기장지역의 갖가지 특산물에서부터 각종 기념품, 먹거리를 파는 난전이 이어지는데, 연일 사람들로 북적인다. 북적이는 골목길을 벗어나면 십이지신상과 십일면관세음보살입상이 도량으로 안내한다.

### 용궁사에 들어서면

도량으로 들어서면 8각 7층의 교룡안전탑 뒤로 일주문이 있다. 황금용 두 마리가 기둥을 대신하고 있는 일주문 현판에는 '해동제일관음성지'라고 써여 있다. 일주문을 지나 백팔계단 가는 길에서 처음 만나는 것은 포대화상을 담은 득남불이다. 아들을 원하는 이들의 염원이 스쳐간 배와 코끝이 새까맣다. 용궁에 들어서는 석굴문이란 뜻에서 지어진 용문석굴을 지나면 백팔장승계단이 있고, 가파른 대숲 터널을 따라 한 계단씩 발을 옮기다보면 어느새 계단이 바다속으로 자맥질 하듯 내리 뻗는 바람에 깜짝 놀라

게 된다. 놀란 시선을 들면 숨 돌릴 틈도 없이 다시 한 번 깜짝 놀란다. 비산비수의 비경이 한 눈에 들어와, 순간 가슴이 탁 트이고 시름을 잊게 되기 때문이다. 아마도 춘원 이광수의 시상이 펼쳐 여기 이 자리에서 비롯했으리라 짐작되는 대목이다. 홀연히 나타났으나 한 눈에 드러나고, 바다와 산이 굽이쳐 만나지만 산도 아니고 바다도 아닌, 그리고 다시 산이고 바다인 그 광경에 누구라도 벅찬 감흥을 쉽게 수습하기 힘들다. 범인도 그려할 진대 시인의 가슴이야 말할 것도 없었을 것이다.

불이문을 지나 바닷길 위로 아슬아슬하게 놓인 돌다리는 마치 피안의 세계로 향하는 유일한 통로인 것처럼 다리의 폭이 좁고 좁다. 돌다리를 지나 경내에 들어서면 다시 장쾌한 동해가 한 눈에 들어오고, 고개를 넘어 사찰의 가장 높은 곳을 올라다보면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해수관음상이 보인다.

### 용궁사 8경의 하나 '일출'

아름다운 일출을 볼 수 있는 해동용궁사는 늘 아침부터 부산스럽다. 일출 전 대웅전에 들러 부처님을 뵈고 나오면 한 폭의 그림을 볼 수 있다. 붉게 물든 바다 위로 부처님의 사리가 모셔진 석탑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여기저기서 카메라 셔터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 일출을 카메라에 담기 위해 물러온

사진쟁이들이 용궁사의 아침을 담고 있다.

도량의 마당이 붉게 물들어 가고, 주지 정암 스님이 마당의 그 붉은 햇살을 정성스럽게 쓸어내고 있다. 경전을 넘기듯, 행선을 하듯 비질을 하고 있는 정암 스님을 만났다. 정암 스님은 "용궁사의 아침일출은 '용궁사 8경'의 하나로 그 외에 보름 달빛에 비친 풍경, 해무에 덮힌 아침 풍경, 만경창파, 시랑망해, 석양에 들려오는 종소리, 봉축연등물결, 벚꽃길과 함께 보는 이로 하여금 마음을 편히 쉬게 하는 풍경이다."고 전했다.

### 풍부한 주변 콘텐츠

바다에 자리한 사찰답게 민간신앙의 교섭도 상당수 눈에 띈다. 용궁단, 마이산 탐사를 연상케 하는 칠성담, 교룡안전기원탑 등이 그것이다. 외에도 제2의 갯바위로 부르는 석조약사여래불과 방생터의 지장보살은 해수관음대불과 함께 기도객들이 몰리는 곳이다. 또한, 부산 제일 관광지라 해도 과언이 아닌 해동용궁사는 득남불, 학업성취불, 행운의 연못, 황금돼지, 소원의 부적판, 십이지신상 등 관광사찰로서의 콘텐츠도 많이 있다.

뿐만 아니라, 해동용궁사를 둘러싼 관광 인프라도 대단하다. 차로 10여 분 거리 내에 해운대·송정해수욕장, 청사포, 광안대교 등이 있고, 누리마루 APEC하우스, 영화의 전당, 백스코 등 국제적 규모의 시설과 기장미역, 멸치축제 등 유명한 해변항, 해안산책로인 부산 갈매길, 기장 오랑대-동암마을-해동용궁사-공수마을-송정 그리고 달맞이길로 이어지는 문텐로드가 절묘하게 이어져 있다. 특히 해동용궁사에서 흥룡교를 건너면 국내최초 해양수산 종합과학관인 수산과학관이 있다. 이곳은 무료로 운영되며 해양과 관련한 교육, 전시, 놀이프로그램으로 가족과 함께 유익한 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

해동용궁사=박경수 부산 지사장

### 주변보기

#### 〈사찰〉

▣ 정암사 / 기장군 장안읍 장안리 591 (051-727-2392)

신라 문무왕13년(673년)에 원효대사가 창건하여 쌍계사라 부르다가 애장왕이 다녀간 후 장안사라 개칭하였고, 1592년 임진왜란으로 불탄 것을 1638년(인조16년)에 중건하였으며 대웅전이 보물 제1771호로 지정됐다.

▣ 안적사, 척판암

#### 〈맛집〉

휴사루 전통한식집 / 051-722-1377  
기장 증가집 짬뽕곰장어 / 051-722-8958  
순근할매 전복죽집 / 051-721-2959  
다그리메 퓨전전통차집 / 051-723-5959

#### 〈숙박〉

마루하우스펜션 / 010-5013-2146  
바우하우스펜션 / 010-2552-2081  
니나인호텔 / 051-704-3003  
모텔하얀성 / 051-704-0456  
송정바다민박 / 051-703-0262

#### 〈가볼만한 곳〉

송정해수욕장 / 해운대해수욕장 / 청사포 / 광안대교 / 해운대달맞이길 해안산책길 "문텐로드" / 국립수산과학원 / 기장 해변항 / 누리마루 APEC하우스 / 영화의 전당 / 백스코



해수관음대불



해동용궁사 사리탑 일출모습



해동용궁사 전경



저작권자  
상표권자 정 흥 교 (법화 중헌)

저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교주」로서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전국  
서울. 의정부

수강생모집

# 구단구궁법

특  
허  
상표등록번호 : 40-0863341호  
서비스등록번호 : 41-0213393호  
저작권등록번호 : C-2011-003967호

### 강 의 일정표

- ◇ 제 1일 - 구단구궁의 제법칙
- ◇ 제 2일 - 구단구궁비결 문구해석
- ◇ 제 3일 - 교재 중심(일련의 사태 재해석)
- ◇ 제 4일 - 구단구궁용신의 제법칙
- ◇ 제 5일 - 구단구궁 실천감정

-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신동법으로 미래를 예측함
-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 귀신뽑아 조상천도연계
- 교육이수 후 즉시 영업 가능함
-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신문,인터넷, 정·부정기 간행물, 도서, TV, 유·무선라디오 광고 및 교재 무단복제, 강의하면 민 형사상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 저작권 :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상표법 :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구단구궁법대학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2동 498-10 명화빌딩 (의정부역 1번 출구 2분거리) ☎ 전화 010-7415-0803 / 031)928-5030  
인터넷 검색창 :

〈우체국 601401-01-001843 예금주:자비실천불교연합회〉